

세계를 품는 '글로벌 항만' 전남 미래 이끈다



창립 3주년 맞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리·운영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가 창립 3주년을 맞았다. 지난 19일로 창립 3년차인 항만공사는 자립기반 확보와 경영 안정화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신규 물동량 창출과 부채 감축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가 창립 3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물동량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 국내 대표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물동량 매년 꾸준히 증가
배후단지 34개 기업 유치
신규 물동량 증대 기여할 듯

금융부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하고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부두로

◇꾸준한 물동량 증가=여수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는 계속된 불황 속에서도 국내 2위 항만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항만공사는 창립 이후 여수·광양항의 물동량 창출과 기업유치 등에 사활을 걸어왔다.

유관기관 합동마케팅, 찾아가는 마케팅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신규 물동량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컨테이너 208만5000TEU, 총물동량 2억3400만t에 이어 2012년에는 컨테이너 215만4000TEU, 총물동량 2억4000만t을 처리했다.

지난해에도 컨테이너 228만5000TEU, 총물동량 2억4100만t으로 부산에 이어 국내 2위, 세계 18위의 복합물류항만 위상을 세웠다.

올 해도 상반기 컨테이너 118만8000TEU, 총물동량 1억2500만t을 처리해 올해 목표인 컨테이너 242만TEU, 총물동량 2억5400만t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만8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광양항 입항, 신규 항로 유치, 기존 선사의 선박 대형화 등을 이끌어 내 더욱 물동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95만㎡의 동측배후단지에 27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193만㎡ 규모의 서측배후단지에도 7개 기업을 유치, 입주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향후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 부채 감축=항만공사는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개혁 의지에 발맞춰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범 이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컨부두 기능전환 등을 통해 부채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 결과 출범 당시 1조812억원에 달했던 금융부채는 2011년말 9862억원, 2012년말 9119억원, 2013년 841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6900억원대로 줄일 방침이다.

효율적인 항만 운영도 눈여겨 볼 점이다. 항만공사는 컨테이너부두 1단계 1·2번 선석을 일반부두로 기능을 전환하고 지난해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유류부두인 3·4번 선석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3·2단계 부두는 초대형 크루즈선(14년 12회 입항)과 자동차(연간 30만대 이상) 등을 처리하는 다목적 부두로 운영중이다.

◇친환경 부두로 자리매김=항만공사는 친환경항만 조성을 위해 5.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연간 5.84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2740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있다.

또 여수·광양항 조망등 6400여개를 LED로 교체해 연간 747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광양항 전체 45대의 타이어형 야드크레인 가운데 37대를 유류방식에서 전기 방식으로 전환해 연간 359만 k (55억원)의 유류비 절감효과를 내고 있다.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재난 유형별로 분리돼 있던 재난대응 매뉴얼을 통합해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

항만공사는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을 정비했다.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 활동도 활발하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항만사랑봉사대를 중심으로 교육 재능기부, 어촌마을·지역학교 자매결연, 농촌 일손돕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선원표 사장은 "신규 물동량을 늘리고 부채를 더욱 줄여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항만공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컨테이너부두



숫자로 본 여수광양항

연간 총물동량 2억4100만t
전세계 연결항만 107개
복합물류항만 국내 2위·세계 18위



광양 지역협력협의회 발족 시·광양제철·사회단체 지역발전 공조



광양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과 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았다. 광양시는 21일 "POSCO 광양제철소·광양 시민연대회의 및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 지역협력협의회' 발족식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10월 광양시는 시민연대회의 및 POSCO 광양제철소와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문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한 실행기구로 '지역현안 공동이행 TF'를 발족해 중소기업 지원, 환경문제 해결, 지역협력사업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광양시는 앞으로 이 TF를 상설기구인 '광양 지역협력협의회'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역협력협의회를 발족하게 됐다. 지역협력협의회는 ▲지역 하도급 확대와 지역업소 애용 및 물품구매 ▲지역기업 육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및 업소 애용 ▲제철소 4문 개방 ▲지역협력사업 개선 및 선 순환적 가치창출 ▲환경분야 3대 협약서 이행 ▲포스코 투자기업 환경영향 모니터링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동남중건 장학금 1000만원 기탁



광양시는 21일 "최근 동남중건건설 주식회사(대표 왕상희)가 지역 인재육성재단인 백운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동남중건건설(주)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42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왕상희 대표는 "회사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광양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한 힘찬 도약의 발판으로 쓰여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운장학회는 지난 1991년 출범, 기업체·시민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2014년 8월 현재 217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3316명에게 5013백만원을 지급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모든 가구가 한곳에!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사이트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정수장 앞)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저희 법인은 기존의 보상 및 담보평가는 물론이고 부동산투자자문, 개발타당성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권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업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격자와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NET-WORK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대항감정평가법인
자산재평가 전담팀 운영
공정 가치평가본부 02-2051-28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